

두현저수지 휴식공간 조성, 울주군·농어촌공사 위수탁 협약

✎ 신동섭 기자 | ⓒ 승인 2026.07.29 00:00 | □ 2면



▲ 울산 울주군이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와 28일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두현저수지 명품 수변공원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울주군청 제공

울산 울주군이 청량읍 두현저수지 일원에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친수·휴식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의 여가 생활과 정주환경 개선에 나선다.

군은 28일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와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이순걸 군수와 김상훈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장, 이연택 농어촌사업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현저수지 명품 수변공원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150억원을 투입해 저수지 주변을 따라 걷는 수변 산책 동선을 마련하고, 공간 연결성을 높이는 교량과 정원, 휴게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군은 저수지 사용, 공사의 전체적 흐름 관리뿐만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체적으로 감리를 할 수 있는 등 공사비 절감 요인을 고려해 공사와 위수탁자로 선정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는 공사 발주·감독 등 사업 시행 전반을 맡는다. 군은 각종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추진에 필요